

조계종 환경위원회 14인 일괄 사퇴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 화염사 토지사용 '조건부 승인' 마찰

조계종 환경 현안 담당기구인 환경위원회 위원 16인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는 2인을 제외한 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이하 환경위)는 3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했다. 또, 조계종 집행부가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구레 화염사의 토지사용 신청을 승인할 경우 전원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21일 총무회의에서 화염사 토지사용 신청건을 보류시켰으나, 23일 오전 긴급총무회의에서는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렸다.

조계종은 이날 조건부 승인을 통해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이 완료되는 6월말까지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단 내 공론을 모으고, 종단과 환경위원회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무회의의 후 정사를 나서던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과 환경위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며, 장명 스님에게는 "강경한 입장으로만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환경위는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승인이다"라며 "23일 환경위원 16인 가운데 성효 스님(계주 관음사 주지)과 현종 스님(강릉 현덕사 주지)을 제외한 전원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환경위원 가운데 이영경 교수(동국대)와 최승현 교수(부산대)는 조계종이 추진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직도 함께 사퇴했다.

장명 스님은 사퇴서 제출 직전 기자회견

을 갖고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단체, 불교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집행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 승인한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총무회의에 참여한 분들 모두가 어떠한 사회적 영향과 역사적 의미, 시대적 책임감부재 등 엄청난 파장을 주는 결정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케이블카 건설 문제는 사찰의 수행환경뿐만 아

환경위, "전문가 불러놓고 외면 화염사 승인 신청...관례 불보듯"

VS

사회부, "환경위 배제는 실무 착오 6월말까지 공청회...타당성 검토"

나라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총무원장과 관련 부장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위원 이병인 교수(부산대)도 "환경위 의견은 애초부터 화염사의 계획 철회와 총무원의 반례였다. 조건부라니 총무원이 결정할 일을 두고 왜 물타기를 하는지 갑갑하다"고 말했다.

장명 스님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밖으로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결국 소수의 이익만을 쫓고 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종단의 결정이 그야 똑같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녹색성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오른쪽)이 부재중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뒤 합장하고 있다.

장이면서 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보존주요 관리해야 할 국립공원 지역까지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케이블카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종단이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추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위의 이 같은 반발은 조계종 사회부 등 쟁 집행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의도적으로 종법기구인 환경위를 배제했다는 데 있다.

장명 스님은 "사회부는 1월 재무부로부터 환경위원회와의 공동조사를 요청 받았음에도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승인했다"며 "몇몇 총무원에 의해 진행된 현장 조사의 전문성과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총무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승인이다. 앞으로 전국 사찰에서 케이블카 건설 등 개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명 스님은 "조계종에 생명결사·소통이 있기는 한 것이냐"며 "환경위원장은 내놓았지만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이 문제

에 대해 종회에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브리핑을 통해 "종단은 케이블카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시범사업까지 막을 수는 없다. 신청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횡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염사의 토지사용 신청건은 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 이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국립공원 측이 심의기구를 통해 환경 훼손이나 문화재 보존 등 문제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거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혜경 스님은 화염사 현장조사에서 환경위가 배제된 것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사퇴한 환경위원은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을 비롯해 이병인, 만초 스님, 상덕 스님, 심산 스님, 주경 스님, 진각 스님, 태범 스님, 서재영, 유정길, 윤여창, 이영경, 오충현, 최승현 등 14명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이웃종단 다녀와 분심냈습니다"

조계종 지도자연수 참가 스님들 한 목소리

진각종·천태종 등 이웃종단 방문을 통해 치러진 조계종 지도자연수에서 종단 중진스님들이 크게 분심(奮心)을 썼다. 조계종 기획실이 전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3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지도자연수 브리핑을 통해 연수 의의와 토론 내용 등을 발표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행사는 종단 역사상 최초로 종단 집행부, 본사주지, 종회의원 등이 단체로 진각종 천태종 원불교 등 3개 종단 운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진각종의 인사시스템 ▷천태종의 재정투명성과 신도들과 함께 하는 사찰관리 ▷원불교의 교역자 100% 활용과 해외포교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통합 재정운영과 투명한 재정관리에 종단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행사 둘째날인 16일 대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대종공사에서는 종단 재정 투명화와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본사단위의 통합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총무원장스님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기획실은 "본사 중심의 통합 재정관리는 종단 현실을 감안해 35대 집행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

로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인사시스템 개선은 현재 직할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교과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계종은 향후 본사 행정력 및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종공사에 앞서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불교사회연구소의 과거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불자들의 정치·사회 의식이 낮음과 불교계가 사회적 대안제시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총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진각종-인사 천태종-신도 운영

원불교-해외포교 활성화

시스템 강화 등 개선 필요성 확인

서는 사찰이 ▷불교문화 중심의 지역문화 창달 ▷지역사회와 소통과 화합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 정치 참여 ▷불자와 지역민의 정치사회적식 고취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연수에서 통합 재정관리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 다만 방안을 만들어가자는 대중의 취지를 확인한 행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계가 더 도와 달라" 조계종 화평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과 자성과학연구소장인 본부 사무총장 일각 스님은 3월 2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비롯한 비정규직·해고 노동자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급일봉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쌍용차 해고자인 김정욱 지부장과 김득중 수석부위원장은 "불교계가 쌍용차를 비롯한 해고자, 비정규직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출가제도 개선 공청회 열기로

승가교육진흥위, 출가제도개선소위 구성

조계종이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점검 대안 마련을 위한 기구를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공청회를 상반기 중 개최한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승진위)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기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출가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간사 법인 스님과 종광·성문·일운 스님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에 앞서 승진위 위원장 자승 스님은 승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인사말을 통해 올해 승진위가 집중해야 할 사업 중 출가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자승 스님은 "현재 청년출가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전체 출가자도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종단 출가 정책은 자발적인 출가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제도를 갖고 있기에 종단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투표 참여가 애국입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3월 20일 오후 12시~1시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에서 주관해 실시됐다. 사진은 실승 공동대표 정영 스님의 1인 캠페인 모습. 박재원 기자

"교회 투표소는 그만"

종평위, 중앙선관위에 공문 발송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응)는 3월 23일 4·11총선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

이 공문은 4·11 총선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교자유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미리 권고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종평위는 공문에서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을 준수해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역선거관리 위원회에 관련 지침을 하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미리 이유를 밝혀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INTERNATIONAL BODHISATVA

국제보살제

한국·일본·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고승대덕 큰스님이 증명하십니다.

관음종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08주년 기념 대법회

이 보살계를 받으면 삼세의 죄업장이 소멸되고 무명과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며 계를 받는 인연과 수지의 공덕으로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게 됩니다.

- 일시 : 불기2556(2012)년 4월 4일 오후 2시
- 장소 : 관음종·경남교구본사 영축산 법성사
- 주최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02)763-0054)